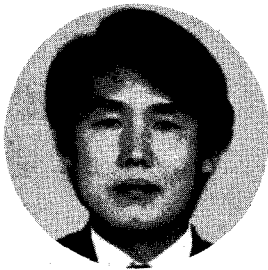


會議參加하고나서...

- 印 度 -

不可思議한 魅力

“Energy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會議參加 所感



정 언 황

大韓石炭公社 海外協力課長

지난 1월 WEC 개도국에너지 문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동 회의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못한데다 막상 처음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약간의 긴장감이 왔다.

동양의 신비 인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탑승수속을 마치고 KAL 기체를 실었다. 눈을 감고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햇살이 비치는 창밖으로 인간의 존재를 무시하듯 무한히 펼쳐있는 푸른바다를 바라보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감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기내방송으로 봄베이 도착을 알리는 아나운서의 안내방송에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니 캄캄한 밤하늘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낮설은 인도의 첫밤을 보내기 위해 Bombay 근처의 Hotel을 공항안내원의 소개로 찾으니, 새까만 피부의 종업원이 반긴다. 뒤를 따라 room에 들어가보니 샤워실 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엉터리였다. 어쨌거나 여장을 풀고 뒤척이는 밤을 지내고, 이튿날 새벽 목적지인 Judhpur로 가기 위해 국내선 공항으로 향했다. Bombay 시가의 첫인상은 고대 인도의 위풍당당하고 오색찬란한 이슬람건축물, 유적지를 상상하고 기대했으나 거리에 흐르는 낡은 자동차 행렬, 오가는 사람들의 허름한 옷차림에서 오늘의 인도를 보고 비록 단편을 본것에 불과하지만 역시 역사와 시대는 흐르는 물과같이 변하는 것이구나 하는 조금은 허전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탑승한 여객기가 마치 완행열차 같이 경유지 새곳을 거쳐 목적지 Judhpur에 도착하니, Bombay에서 느꼈던 덥고 습한 기후와는 달리, 날씨가 한국의 초가을과 비슷하고 주위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높고,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가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한결 달래주는 듯 하였다. WEC측 안내를 받으며 회의장소에 도착하니 맞이은 MR. LINDSAY(WEC 사무총장), CHAUBAL씨 등이 미리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멀리 보이는 Judhpur시는 길게 뻗어있으며 거대한 유적이 있는 도시였지만 Hotel 주위는 지저분하고 회의장소인 Hotel은 마치 거대

한 궁전을 연상시키는 이슬람식 건축물이었다. 이렇게 웅장한 Hotel이 있다니! 역시 인도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不可思議한 나라라고 느껴졌다.

會議는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와 일부 대표는 자원의 내셔널리즘 배격을 주장하고 Oil 파동과 같은 제 2의 자원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빈국인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책이 있어야겠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韓國과 같이 天然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현재의 低油價 시대가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90년대에 한차례 에너지 危機가 올것으로 예상) 70년대와 같이 國內經濟 전체에 악영향을 받지않기 위해 다각도로 이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위원회의 주요 테마중 하나인 선진국과의 합작을 통한 에너지 자원 개발은 자원 자체가 없는 韓國의 입장에서는 기타 자원 보유 개도국과는 현실적인 조건이

편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 長期的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國內外 에너지 개발(石油, 石炭, 가스)에 적극 투자
- 資源 保有國과의 굳건한 紐帶強化 및 합작개발로 安定 供給源의 확보
-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 및 자체 연구로 에너지 新素材 개발(太陽熱, 原子力, 기타)

회의는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Energy 문제에 대하여 각회원국 대표와 인도관계자의 의견교환, 자원국의 역할, 선진국의 개발협력 및 89년 WEC/몬트리올 총회시 보고서 준비를 위한 회원국의 자료제출요청을 끝으로 폐막되었다.

이번 회의를 끝내면서 에너지문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재삼 느끼며 인도의 먼 여정을 끝내고 귀로에 올랐다.

